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운 용 기 간 : 2023.10.12 ~ 2024.01.11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바에 따라 작성했으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공지사항

1.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 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의 자산운용회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작성하여 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포스증권 등](http://dis.kofia.or.kr 참조)을(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펀드투자위험등급과 관련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16.1.26.개정(5등급제→6등급제 기준)되어 '16.7.1.부터 시행되었습니다.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칸서스자산운용 및 가입하신 판매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금융위(금감원)(dart.fss.or.kr)

※ 목 차

펀드의 상세 운용 현황

1. 펀드개요
2. 운용 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동일한(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8. 펀드 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9.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0. 펀드용어 해설

• 본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않으며 실적 배당상품으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명서 및 규약등을 참조하시거나,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투자자의 계좌와 관련된 사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보고서 확인 :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펀드의 상세 운용 현황

※ 펀드개요

• **기본정보 : 펀드의 설정일, 운용기간, 위험등급, 펀드의 특징 등 펀드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BO720
종류 A	BO721
종류 A-e	BO722
종류 C	BO723
종류 C-e	BO724
종류 C-p	BO729
종류 C-p1e	CE461
종류 C-pe	CE460

펀드의종류	[투자신탁],[증권펀드](채권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	**최초설정일**	2017-07-12
운용기간	2023.10.12 ~ 2024.01.11	**자산운용회사**	칸서스자산운용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판매회사 (http://dis.kofia.or.kr 참조)**	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포스증권 등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우리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우리펀드서비스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고난도 펀드	해당하지 않음		

상품의 특징 및 투자 전략

▣ 투자신탁개요

- 본 펀드는 60% 이상을 채권에, 40% 이하를 CP(기업 어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기가 짧은 자산을 통한 짧은 듀레이션으로 안정적인 펀드 구조를 유지하며 시장 환경에 따라 다양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현황 : 펀드의 당기말과 전기말의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원, 좌, %)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자산총액(A)		36,143,363,575	40,663,979,796	12.51
부채총액(B)		3,501,086,330	11,322,470,665	223.40
순자산총액(C=A-B)		32,642,277,245	29,341,509,131	-10.11
기준가격		1,010.47	1,023.85	1.32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종류 A	**기준가격**	1,010.63	1,023.59	1.28
종류 A-e	**기준가격**	1,010.10	1,023.11	1.29
종류 C	**기준가격**	1,014.89	1,027.40	1.23
종류 C-e	**기준가격**	1,009.88	1,022.65	1.26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종류 C-p	**기준가격**	1,009.93	1,022.77	1.27
종류 C-p1e	**기준가격**	1,009.90	1,022.70	1.27
종류 C-pe	**기준가격**	1,010.04	1,022.99	1.28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 가입한 펀드의 운용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용기간 중 채권시장은 분기 초반 미국 고용 및 경제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약세를 나타냈으며, 시간이 흐르며 국고채 발행규모 축소 이후 미 경제지표 예상치 하회하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 따라 채권 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대폭 하락한 이후, 12월 FOMC 점도표 하향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도비쉬한 발언에 따라 연말 강세 분위기 지속되며 4분기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수익률 곡선은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 및 경제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으로 미국 채권 금리에 연동되며 플래트닝 양상을 보였습니다.

10월 채권시장은 이스라엘 하마스간 지정학적 리스크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 견조한 미 경제 지표 및 미국채 발행 증가, 금통위 매파 동결 등을 반영하며 10월중 큰 폭 약세를 보였으나, 11월 국고채 발행규모 축소 이후 FOMC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미국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강세 출발하여, 미 고용지표 및 물가지표 등 전반적 경제지표의 둔화, 주요 연준위원 비둘기 스탠스 등 글로벌 채권 강세 재표에 따라 월후반 금통위 매파 동결 등에 따른 산발적인 소폭 조정에도 불구 전월 대비 큰 폭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에도 금통위 동결 발표 이후 12월 FOMC 점도표 하향 및 파월 발언의 도비시한 해석으로 국내 금리는 월중 강세를 지속 후, 월 후반 주요 기관들의 북클로징에 따른 한산한 시장흐름에서 따라 변동성은 제한되었으나, 강세 지속되며 마감하였습니다.

1월 초반 채권시장은 연말 랠리 마감 이후 레벨 부담 및 국고 발행물량 정상화에 따른 약세 출발 이후, 고용지표 호조에도 대기매수세 유입되며 약세 제한되었으며, 금통위 금리 동결 및 추가인상 필요성 문구 삭제되며 인상기조 종료 인식 속, 한은 총재의 금리인하 논의자체가 시기상조 발언 등 기대 차단 노력에도 금리 하락 압력 지속되며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동 펀드는 금리 메리트가 있는 짧은 만기의 우량 전단채/CP/채권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국채 현/선물을 활용한 듀레이션 조절 및 시장 금리 방향 추종 운용을 통하여 수익율 제고에 지속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 수익률곡선 등락에 따라 현선물을 활용해 초과 수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용펀드 기준 운용기간 중 1.3241% 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벤치마크 대비 13.1bp 상회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가입한 펀드의 향후 투자환경 전망과 운용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채권시장은 2월초 발표된 미 고용지표의 예상치 큰 폭 상회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조정 장세가 예상됩니다. 연중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으나, 예상보다 양호한 미 4분기 GDP 및 미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 5월 인하 기대감까지 후퇴한 상황임에 따라, 국내 시장도 글로벌 금리 흐름을 추종하며 조정 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되며 상향된 박스권 내 등락 장세를 예상합니다.

월초 미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발표와 예상보다 완만한 경기지표 둔화 등에기인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따라, 미 FOMC 및 국내 금통위 등에서 중앙은행들의 금리 동결 결정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경계 발언이 예상되며, 국내외 채권시장은 당초보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축소하며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만하게나마 여전히 둔화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물가의 추세 지속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버리게 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 금리 박스권 상단의 유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고3년: 3.20 ~ 3.50%, 국고10년: 3.25% ~ 3.60%)

크레딧 시장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PF관련 구조조정 및 시장 연착륙 유도 의지 재확인에도 불구, 연초 풍부한 유동성 속 저금리 상황하 우량 크레딧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채권형 펀드로의 연초 자금 집행 및 포지셔닝 수요 등에 기인한 중단기 우량 크레딧 매수세에 따라, 크레딧 스프레드는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시장금리 하락/상승시 듀레이션 축소/확대 대응 지속할 예정이나, 월초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폭이 다소 과도하게 축소된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가입한 펀드의 향후 투자환경 전망과 운용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태로 출발하였음을 감안, BM대비 중립 수준을 중심으로 하여 듀레이션 확대 시점과 금리 수준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에정입니다. 또한 국고채 커브 상대가치 전략은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시 스티프너 관점은 유지하나, 금리 상승 조정시 듀레이션 확대의 목적하에서는 단기물 매도/장기물 매수 대응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크레딧의 경우 중단기물 우량 크레딧 채권 위주 만기 분산 구성 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였으며, 최근 건설사 PF리스크 재부각에 따르는 경계감을 감안하고 시장 여건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펀드의 유동성 관리와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기간수익률 :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p)

항목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1.32	2.39	3.36	5.06	8.79	10.00	15.48
(비교지수대비성과)	0.13	0.21	0.44	0.83	2.52	2.92	4.80
비교지수	1.19	2.18	2.92	4.23	6.27	7.08	10.68
	종류(Class)별 현황						
종류 A	1.28	2.30	3.23	4.89	8.44	9.46	14.55
종류 A-e	1.29	2.31	3.25	4.91	8.48	9.53	14.66
종류 C	1.23	2.20	3.08	4.69	8.01	8.81	13.41
종류 C-e	1.26	2.27	3.18	4.82	8.29	9.24	14.15
종류 C-p	1.27	2.28	3.20	4.85	8.34	-	-
종류 C-p1e	1.27	2.27	3.19	4.83	8.31	9.30	-
종류 C-pe	1.28	2.30	3.23	4.89	8.43	9.45	-

※ 비교지수 : [KIS종합 3M-01Y] 95% + [KIS_CALL지수]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종류 C-p1e 수익증권은 2019.02.19에 최초 설정되었으나, 운용기간 중 종류 C-p1e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전부 인출(설정액 0원)되었다가 2020.09.24에 재설정되었습니다. 종류 C-p1e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은 재설정된 날로부터 계산된 가격(수익률)입니다.

※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 아래 표를 통해서 자산구성 및 통화별 금액의 구성비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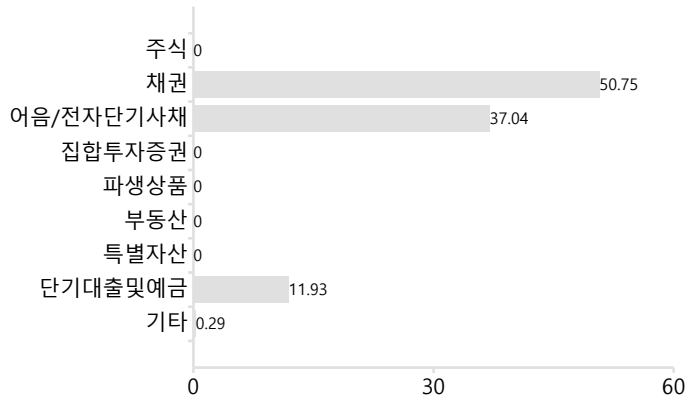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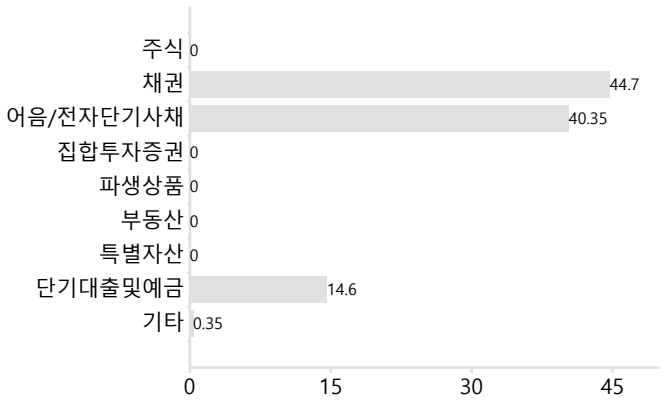
(단위: %)

당기	전기

(단위: %)

당기	전기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전자 단기사채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20,635	15,061	0	0	0	0	0	0	4,850	117	40,663
	(0.00)	(50.75)	(37.04)	(0.00)	(0.00)	(0.00)	(0.00)	(0.00)	(0.00)	(11.93)	(0.29)	(100.00)
합계	0	20,635	15,061	0	0	0	0	0	0	4,850	117	40,663
	(0.00)	(50.75)	(37.04)	(0.00)	(0.00)	(0.00)	(0.00)	(0.00)	(0.00)	(11.93)	(0.29)	(100.00)

*( ) : 구성 비중

- **자산구성현황**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의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비고
하나캐피탈370-2	3,000	3,053	2022.11.22	2024.04.22		AA-	7.51	5%초과종목
BNK캐피탈242-3	1,990	1,979	2021.04.07	2024.04.08		AA-	4.87	
현대캐피탈 1820-1	2,000	1,975	2019.08.28	2024.08.28		AA+	4.86	
신보2022제22차유동화1-1(사)	1,700	1,744	2022.10.27	2024.10.29	신용보증기금	AAA	4.29	
한국투자캐피탈92-1	1,500	1,520	2023.08.11	2025.08.11		AA-	3.74	

어음 / 전자단기사채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비고
한국투자증권 20230214-364-23	5,000	4,983	2023.02.14	2024.02.13		A1	12.25	어음:5%초과종목
하이투자증권 20231124-182-70	5,000	4,919	2023.11.24	2024.05.24		A1	12.10	어음:5%초과종목
트루에이치제육차 20231221-91-1(단)	2,500	2,479	2023.12.21	2024.03.21		A1	6.10	전자단기사채:5%초과종목
랩스제일차 20240104-84-1(단)	2,000	1,982	2024.01.04	2024.03.28		A1	4.87	전자단기사채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CD	경남은행	2023.11.29	4,833	3.99	2024.11.28	5%초과종목:11.89%

※ 투자운용인력현황

• **투자운용인력 : 이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일임계약 포함)의 개수 및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 개수	운용 규모	펀드 개수	운용 규모	
책임운용전문인력	고호진	상무	14	163,504	-	-	212300094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양경수	이사	2	48,649	-	-	2109001124

■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 최근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2018.12.18 ~ 2022.05.27	민영기
책임운용전문인력	2022.05.27 ~ 2023.01.30	김현주
책임운용전문인력	2023.01.31 ~ 2023.04.26	양민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19.09.10 ~ 2021.02.18	이동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22.05.27 ~ 2023.01.30	양민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23.04.27 ~ 2023.07.03	양민규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 이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및 기타비용,매매·중개수수료와 비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회사		7.702	0.090	7.113	0.090
판매회사	종류 A	0.801	0.050	0.669	0.050
판매회사	종류 A-e	0.519	0.030	0.391	0.030
판매회사	종류 C	3.392	0.250	3.732	0.250
판매회사	종류 C-e	1.221	0.120	1.219	0.120
판매회사	종류 C-p	0.004	0.100	0.004	0.100
판매회사	종류 C-p1e	0.347	0.110	0.173	0.110
판매회사	종류 C-pe	1.393	0.055	1.425	0.05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856	0.010	0.790	0.010
일반사무관리회사		0.856	0.010	0.790	0.010
보수 합계		17.091	0.200	16.307	0.206
기타비용**		1.194	0.014	1.201	0.015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533	0.006	0.912	0.01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000	0.000	0.000	0.000
	합 계	0.533	0.006	0.912	0.012
증권거래세		0.000	0.000	0.000	0.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 기간평잔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모자형의 매매・중개수수료는 모펀드에서 발생한 매매・중개수수료를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한 수치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총보수/비용비율 : 이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및 기타비용,매매・중개수수료와 비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위: 연환산, %)

펀드명칭	구분	해당 펀드			상위 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 수수료비율(B)	합계(A+B)	합성총보수・ 비용비율(C)	매매・중개 수수료비율(D)	합계(C+D)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전기	0.214	0.006	0.220	0.214	0.006	0.220
	당기	0.222	0.012	0.234	0.222	0.012	0.234
종류(class)별 현황							
종류 A	전기	0.174	0.000	0.174	0.174	0.006	0.180
	당기	0.175	0.000	0.175	0.175	0.011	0.186
종류 A-e	전기	0.154	0.000	0.154	0.154	0.006	0.160
	당기	0.155	0.000	0.155	0.155	0.012	0.167
종류 C	전기	0.374	0.000	0.374	0.374	0.006	0.380
	당기	0.375	0.000	0.375	0.375	0.012	0.387
종류 C-e	전기	0.244	0.000	0.244	0.244	0.006	0.250
	당기	0.245	0.000	0.245	0.245	0.011	0.256
종류 C-p	전기	0.222	0.000	0.222	0.222	0.006	0.228
	당기	0.223	0.000	0.223	0.223	0.012	0.235
종류 C-p1e	전기	0.234	0.000	0.234	0.234	0.006	0.240
	당기	0.235	0.000	0.235	0.235	0.011	0.246
종류 C-pe	전기	0.179	0.000	0.179	0.179	0.006	0.185
	당기	0.180	0.000	0.180	0.180	0.012	0.192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 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거래세 포함)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 투자자산 매매내역

해당사항 없음.

※ 동일한(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해당사항 없음.

※ 펀드 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 우량 등급 분산 투자
  ① 국고/통안채 및 당사 크레딧 유니버스 내 우량채권에 대한 Buy&Hold 운용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
  ② 채권 듀레이션을 6개월 내외로 운용하여 금리변동 리스크 축소
  ③ 듀레이션전략 실행시 제한적으로 국채선물 활용

- 크레딧 리스크
  ① 당사 심사를 거친 투자 가능 채권, CP 등의 투자로 Credit Risk 축소
  ② 지속적인 Credit 분석과 시장 점검을 통해 Risk 관리

- REPO매도 Risk
  ① 담보 채권을 국고/통안채 등 무위험채권 또는 AA급 이상 우량등급으로 제한하여 Repo매도가 원활하도록 대응
  ② 사전적으로 거래상대방을 확보하여, 문제발생 가능성을 축소

- 금리상승 Risk
  ① 기본포트폴리오는 만기 또는 만기근처까지 보유하는 운용
  ② 전략을 통해 안정적 수익 확보.
  ③ 만기가 6개월 내외인 채권, CP 등을 매입하여 보유하므로, 금리 변동 위험 축소

□ 자전거래 현황

자전거래 규모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1년
매수	0	1,694,221,780	9,253,001,847

□ 주요 비상 대응계획

-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과 관련된 환매재개, 투자금상환 등의 방안 및 절차 등
  ① 부도자산의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결의
  ② 비상대책반 구성
  ③ 위험관리위원회 및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결의
  ④ 판매사와 협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즉각적인 안내 등

□ 주요 투자 위험

① 일반위험: 투자원금 손실위험, 발행회사 위험, 이자율변동 위험, 부도 위험, 신용등급 하락 위험, 투자신탁 해지위험
② 특수위험: 유동성 위험(환매연기위험), 펀드규모 위험, 규모변동 위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③ 기타 투자위험: 환매청구 시 위험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펀드용어해설

▶ 증권형 펀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며전통적인 펀드상품입니다. 이러한 증권 펀드는 다시 주된 투자대상의 편입비율에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됩니다.

- **주식형**

집합투자규약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 **채권형**

집합투자규약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규약상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않고, 자산총액 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한도가 50%이상인 상품입니다.

-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규약상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않고, 자산총액 중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한도가 50%이하인 상품입니다.

▶ 특별자산형 펀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산이란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으로 투자대상이 포괄적으로 다양하여 새로운 분야의 신상품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 자산의 공정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설정해야하나, 시장성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 파생형 펀드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에 따라 '증권-파생형', '부동산-파생형', '특별자산-파생형' 등으로 구분합니다.

▶ 혼합자산펀드

투자자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 종류의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펀드에 포함되는 주식혼합/채권혼합 펀드와는 다른 개념의 펀드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여러 투자 대상에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부동산펀드

분양권,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 사용 관련 권리 등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 단위형 펀드 vs 추가형 펀드

펀드에는 단위형펀드와 추가형펀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위형은 투자자(수익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매회 독립된 펀드 재산으로 운용하지만, 추가형은 미리 일정액을 정하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처음에 마련한 신탁재산에 추가합니다.

▶ 개방형 펀드 vs 폐쇄형 펀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로 구분됩니다.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 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폐쇄형 펀드는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할 수 없고, 펀드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투자신탁 vs 투자회사

펀드는 법적형태에 따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자산운용회사(위탁자)가수탁자인 펀드재산보관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 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펀드를 말합니다. 반면, 투자회사란 Paper Company로서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 등을 운용하여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 종류형(클래스) 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부릅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내에서 투자자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Class(종류)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Class(종류)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 모자형 펀드

동일한 운용자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의 펀드입니다. 여러 펀드의 재산을 집중하여 통합 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가 되며, 모펀드가 발생한 펀드지분을 취득하는 펀드는 자펀드가 됩니다. 모펀드와 자펀드의 자산운용회사는 동일해야하고, 모펀드의 수익자는 자펀드만이 될 수 있으며,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 외의 다른 지분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펀드재산보관회사란 펀드의 신탁자로서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은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원금은 펀드재산보관회사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판매회사(투자중개매매업자)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